

신문과 국어교육*

이 은 희**

<차례>

- I. 머리말
- II. 국어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신문
- III. 국어교육에서 신문 교육의 목적
- IV. 국어교육에서 신문 교육의 내용
 - 1. 시각 매체적 특성
 - 2. 언어구조적 특성
 - 3. 사회·문화적 특성
- V. 맺음말

I. 머리말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언어 환경 역시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면대면 상황에서 음성 언어를 사용하거나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언어 사용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한 언어 사용이 이에 덧붙여졌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 특히 전통적 의사소통 매체들이 지녔던 시간적, 공간적, 도달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량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특별연구비 지원 과제임.

** 한성대학교, ehlee@hansung.ac.kr

하는 대중 매체가 점차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어교육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통한 언어 사용 활동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중심에 두면서, 대중 매체의 언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렇지만 시대적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중 매체를 보는 시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의 국어교육관으로는 실제로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언어 생활의 많은 모습을 놓친 채, 언어 사용의 일 부분만을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대중 매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김대행(1998)은 언어 환경의 변화, 문화 인식의 변화, 통일의 지향이라는 데서 매체 언어는 교육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의 책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 매체의 국어교육적 의미와 그 수용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매체 언어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대한 논의는 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박인기, 2002) 및 다중 문식성(multi literacy)(최인자, 2002)에 관련된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또 다른 방향에서는 국어교육계에서의 대중 매체 교육에 대한 열풍을 우려하면서 대중 매체 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때문에 국어를 바탕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교육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창덕, 2002:152)이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대중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학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중 매체의 국어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교육적 당위성에 대한 고조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이제는 그 교육적 내용을 채워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연 대중 매체 언어 중에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내적 충실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대중 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개론적 논의와 매체별 특성에 따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각 매체별로 그 국어교육적 의미를 추구하는 연구에서는 방송이 그

중심을 이루어 왔다¹⁾. 이러한 연구 경향은 미디어 교육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어린이와 텔레비전’이라는 주제 하에 이루어진 다양한 보고서들을 토대로 발생하였다는 점, 즉 미디어 교육의 태동이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반운동으로 시작되었다(김양은, 2000:72)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생적 면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수용자들이 비판적 시청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 중심의 논의에 더해서 최근에는 인터넷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뉴미디어로 등장한 인터넷의 엄청난 확산 속도와 함께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과는 다른,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텍스트적 특성을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아무리 방송의 힘이 강하고 인터넷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어도 신문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대중 매체의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디어 교육의 연구 경향 속에서 신문은 같은 대중 매체이지만,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속에서 매체 교육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신문은 방송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신문을 바라보는 대중적 시각은 긍정적인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막으려 하지만 신문의 경우 오히려 이를 읽도록 장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신문을 교육의 제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실제 신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제2의 교과서로 여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리고 신문에 대한 언어적 교육 없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신문이 지닌 매체적 중요성과 지금까지 신문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방식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대중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적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라는 대중 매체가 지닌 국어교육적 의미를 모

1) 그 대표적인 예로 박인기 외(2000)의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를 들 수 있다.

색하고 그 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첫 단계로, 신문에 대한 국어교육적 방향성을 모색해 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어교육의 대상으로서 신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후, 국어교육에 있어서 신문 교육의 목적과 그 내용에 관해 고찰해 보겠다.

II. 국어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신문

신문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문이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특정한 조직체가 뉴스나 정보를 모집, 처리, 제작하여 신문지라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그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서정섭, 1993: 2)
- 세상의 물정과 새로운 소식을 알려 주는 정기 간행물의 하나. ‘신문지’의 준말.(한글학회, 1995:2589)
- 국제국내적으로 벌어지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및 그 밖의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기사나 보도들을 기동성 있게 싣는 정기 간행물.(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1992:1913)

정의에 드러난 바 신문의 개념은 신문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나타나 있다. ‘新聞’이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새로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newspaper’는 ‘새로운 소식(news)’이라는 단어와 ‘종이(paper)’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한자어에서는 내용에 해당하는 ‘새로운 소식’이라는 개념만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영어 단어에서는 이에 덧붙여 ‘종이’라는 매체의 개념을 함께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소식을 신문지라는 종이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신문을 보는 것은 신문에 대한 일반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문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오늘날의 신문의 모습을 살펴

보면, 과연 신문을 이렇게 신문지라는 종이 매체만을 통해 규정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신문을 정보 전달적인 기사만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술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의 매체는 큰 변화를 겪어 왔는데, 매체는 단순한 전달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언어의 모습을 규정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단순히 언어적 약호의 변화만이 아닌, 의사소통의 방식, 나아가서는 문화의 모습에까지 변화를 일으켜 왔다²⁾. 역사적으로 본다면 매체의 변화에 따른 언어의 모습은 크게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 언어,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 언어의 네 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쇄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음성 언어 중심의 소통 상황에서 벗어나 문자 언어가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영상 언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컴퓨터의 등장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언어가 등장하면서 그 동안 사용되던 모든 언어적 전달 수단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의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다고 해서 과거의 매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그것이 사회의 중심적 전달 수단의 위치를 점하고 나아가서 문화의 모습을 바꾸는 역할까지를 한다고 해도, 기존의 매체와 그 언어적 전달의 방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매체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이제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인쇄 매체와 문자 언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중 매체의 발달 단계에서 본다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비해서도 올드미디어의 위치에 있는 신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되면 과거의 대중 매체는 그 새로운 매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2) 이에 대해서는 Ong(1995)과 McLuhan(1997)을 참고할 수 있다.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신문의 역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신문의 역사는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악타 퍼블리카(acta publica)처럼 관보적 성격을 지닌 필사 신문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일정한 사례를 받고 구송해 주는 듣는 신문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이는 문자는 있으나 문맹률이 높고 인쇄술 및 우편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물자와 정보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맞는 신문의 전달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근대적 의미의 인쇄 신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신문이라고 했을 때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신문지로 표현되는 종이 신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매체로 한 인터넷 신문이 등장해서 그 동안 인쇄 신문이 가지고 있던 시·공간적인 제약성을 탈피하고 쌍방향적 정보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을 높여 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인터넷 신문은 두 가지 다른 토양 위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기존의 종이 신문이 인터넷상으로 진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인터넷 신문이다. 기존의 종이 신문이 인터넷상으로 진출한 것으로는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아직은 대부분의 기사를 모기업인 오프라인 신문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취재와 편집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인터넷 신문도 야후나 다음 등의 뉴스 사이트처럼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와 오마이뉴스나 뉴스 보이와 같은 독립 법인 형태의 온라인 전문 신문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후자의 경우를 진정한 신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순수한 인터넷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의 경우 시사저널과 미디어리서치에서 실시한 “2001년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조사결과 8위에 선정되었으며, 2002년 대선에서 매우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신문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본다면 신문은 매체의 기술적 발달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다양한 매체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는 더 이상 신문지라는 요소가 신문의 개념을 규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인터넷 신문의 등장 속에서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미래를 예측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점은 신문은 종이와 인터넷이라는 두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에서 신문을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할 때에는 종이 신문만이 아닌, 인터넷 신문까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인터넷과 인쇄 매체가 가진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이다. 동일한 신문이라고 할지라도 종이 신문은 시각을 중심으로 한 단성적 매체로서의 특성을 지닌 데 비해, 인터넷 신문은 공감각적인 다중 매체의 특성을 지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하이퍼텍스트성을 지니고 있다. 또 정보의 소통 방식에서도 종이 신문이 소통의 일방성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에 힘입어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보다 열려 있으며, 수용의 측면에서도 서퍼로서의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신문은 신문의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흔히 신문을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볼 때는 신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전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데, 과연 신문이 정보 전달적인 측면만을 지니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실제로 신문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함께 싣고 있는 텍스트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신문에 실려 있는 텍스트는 크게 기사와 비기사문으로 나눌 수 있다. 비기사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광고, 만화, 연재 소설 등이 대표적이다. 비기사문에 해당하는 유형의 텍스트들은 신문에 제시되어 있지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사문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보더라도 정보 제공 자체에 목적을 둔 기사문과 그렇지 않은 기사문이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지닌 글들도 신문이 지니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상업적 속성과 사회·문화적 영향 관계 속에서 그 특성이 변질되어 나타난다. 그렇기에 임영호 외(2001)에서는 신문의 기능으로 정보 제공(to inform) 외에도 지도(to influence), 오락(to entertain), 광고(to advertise)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신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은 신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매체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기에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신문을 볼 때 이들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들 중 무엇을 신문 부분에서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를 어떤 틀로 다루는지의 전체적 방향성에 의해 결정될 성격을 지닌다.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대중 매체에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방식으로 매체 중심의 접근 방식과 장르 중심의 접근 방식이 있다. 매체를 중심으로 접근할 때에는 신문의 언어, 라디오의 언어, 텔레비전의 언어, 인터넷의 언어 등의 분류 또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의 분류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또 장르별로 볼 때는 광고, 뉴스, 영화와 드라마, 토의와 토론, 기록물, 오락물 등의 분류(한국교육개발원, 1997) 또는 보도(뉴스, 해설, 논설), 광고와 홍보, 영화와 드라마, 교양물(다큐멘터리, 토의와 토론, 전문가 상담 등), 오락물(쇼, 코미디, 만화, 퀴즈, 연예와 스포츠 등)의 분류 방식(이종철, 1998)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별 접근과 장르별 접근 방식을 어떻게 종합하는가에 따라 신문 언어 교육의 대상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서의 신문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달 매체의 측면에서만 이 아니라 담고 있는 텍스트의 유형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이 신문을 규정하는 요소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 대중 매체 교육의 틀 속에서 다른 대중 매체와의 변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어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신문을 보아야 할지를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³⁾. 이를 위해서는 신문의 기본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해서 이

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즉 인쇄 매체와 인터넷 매체는 그 특성상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매체를 활용한 신문은 시각적인 면, 언어적인 면, 신문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면 등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 신문은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담고 있지만 이들 여러 유형의 텍스트 중에서 신문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사, 특히 뉴스 기사의 경우는 신문의 대표적인 텍스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III. 국어교육에서 신문 교육의 목적

신문, 또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대중 매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실행 주체의 면에서 본다면, 교육 단체, 시민 단체, 가정에서 교육이 가능할 것이며, 학교에서의 교육만을 놓고 보더라도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가진 독립 과목의 형태를 취하는 것, 기존 과목에 포함시켜서 다루는 것, 정규 시간 외의 자율 학습 시간을 활용하는 특별 과목의 형태를 취하는 것 등의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김양은, 2000:171-185).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접근 중에서 국어교육에서 대중 매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는 독립 과목으로서의 미디어 교육이나, 사회 과목에서의 대중 매체에 대한 접근과는 다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어교육의 교과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매체 언어가 놓여야 할 것이다.

매체 언어를 국어교육에서 다룰 때 그 목적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크게 이분법적 논의와 삼분법적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분법적 논의에서는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매체에 대한 교육으로 매체 언어 교육을 나눈다.⁴⁾ 최미숙(2000)에서 매체 언어가 학습의 대상이 아닌 수단으로 인

3) 물론 이는 신문에서만이 아닌, 매체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해서 대중 매체에 접근할 때 다른 매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식됨으로 인해서 ‘그 겨냥하는 효과가 정보 자료의 취득이나 이해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하에서 볼 때 매체를 활용한 국어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매체 언어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신문 언어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주로 신문활용학습(Newspaper in Education) 측면, 즉 신문 매체를 활용한 국어교육의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더라도 잘 드러난다. NIE는 1955년 미국 교육협회와 지방 신문사가 협력하여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신문을 학교 수업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신문사와 교사가 협력하는 신문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김미경, 1999:2)으로, 비판적 이해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 미디어 교육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물론 신문활용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문 매체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분석을 통해 비판적 신문 교육을 꾀하려는 미디어 교육적인 시도⁶⁾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신문에 대한 국어교육적 관심은 매체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문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긍정적 시각에 힘입은 바가 크다.

물론 신문이 현실의 언어 생활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어 사용의 전범적 특성을 지니며, 다양한 의견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신문 활용 교육이 국어교육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도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신문, 그리고 신문의 언어를 설정했을 때는 신문 활용 교육을 넘어서서 신문에 대한 교육, 즉 신문 언어의 본질에 대한 교육으로 관심을 돌려

4) 이경화(2000)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볼 수 있다.

5) NIE 측면에서 이루어진 국어교육적 연구로 박길자(1998), 김미경(1999), 이계영(2000), 장경수(2001), 김정식(2001) 등을 들 수 있다.

6) 이러한 시도로 박재승(1999), 최인자(2000) 등을 들 수 있다.

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신문 활용 교육을 넘어서서 신문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신문에 대한 국어교육이 무엇인가는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다.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적 논의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매체에 대한 교육’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매체에 대한 교육’을 ‘매체에 대한 교육’과 ‘매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논의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러한 삼분법적 구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매체를 활용한(with) 국어교육 - 매체를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국어교육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매체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매체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매체에 대한(about) 국어교육 - 모든 매체는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텍스트 구성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익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국어교육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매체를 통한(through) 국어교육 - 매체 언어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아는 데 목적을 둔 국어교육을 의미한다.

매체교육의 목표를 이와 같이 셋으로 나누었을 때 매체를 활용한 국어교육의 개념은 명확하지만,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과 매체를 통한 국어교육의 개념이 무엇이며 이 중 어떤 것이 국어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최병우 외(2000)에서는 “매체에 대한 매체 언어 교육은 매체 언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매체를 통한 매체 언어 교육은 가장 확장되고 심화적 수준으로서 매체 문식성을 지향하게 된다.”(p.56-57)는 언급을 통해 국어교육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은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매체를 통한 국어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구경희(2001)에서는 “매체교육은 매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매체를 통한 교육

의 경우 따로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실시되기보다는 범교과적인 교육을 통해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국어과의 다른 영역, 다른 교과와의 교육 내에 녹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p.18)고 보았다.

매체를 통한 국어교육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는 관점에서는 매체를 국어교육에서 다룰 때 일종의 단계성을 설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매체에 대한 매체 언어 교육은 국어교육에 포함되지만 이는 기본 단계이며, 보다 심화된 단계로 매체를 통한 매체 언어 교육을 본다. 반면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을 국어교육의 목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국어교육의 교과적 독자성에 중점을 두면서, 매체를 통한 국어교육은 범교과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기에 이는 국어교육만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이 국어교육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점은 매체를 통한 국어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바 ‘매체를 통해서 알아야 할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인가이다. 그런데 매체를 통한 국어교육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는 견해와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견해를 살펴보면, 이 둘이 매체를 통해서 알아야 할 어떤 것에 대해 각각 다른 것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병우 외(2000)에서는 “매체를 통한 매체 언어 교육에서는 지적, 정서적 정보의 표현이나 전달을 위해 선택된 매체 언어의 특성이나 양상, 그리고 그것이 지닌 심리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읽게’ 한다. 다시 말해 매체를 거쳐 매체 생산자를 읽고 다시 사회와 문화를 읽게 한다는 것이다.”(p.57)는 논의를 통해 문화적 문식성에 해당하는 것을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구경희(2001)에서는 “매체를 통한 교육은 매체에 관한 교육을 통해 매체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사고력 신장, 문화의 향수와 계승 창조 등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육”(p.18)이라는 논의를 통해 교육적 보편성에 해당하는 부분들, 즉 국어교육만의 목표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매체를 통한 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에 목적을 둔 견해에서 과연 매체 언

어에 존재하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언어적 양식의 습득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언어란 추상적인 기호 체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 이해의 기본 전제이다. Hymes는 SPEAKING이라는 두문자어를 사용해서 상황을 구성하는 구성성분을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의 상황은 물리적 배경(setting), 심리적 장(scene), 참여자(participants), 목적(ends), 행위 연속(act sequence), 어조(key), 전달 수단(instrumentalities), 규범(norms), 장르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매체 언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 매체 언어가 성립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아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다.

매체 언어를 통한 국어교육이라는 동일한 명칭 아래에서 언급되었던 내용 중 ‘사고력 신장, 문화의 향수와 계승 창조’ 등은 교과적 보편성에는 해당되지만, 국어교육만의 내용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가 사용된 심리적, 사회문화적 맥락은 그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기에 매체 언어 교육의 기본적 요인이며,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는 견해에서는 이를 ‘매체에 대한’이라는 개념 속에 녹여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두 견해는 상호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보는 시각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매체 언어에 대한 국어교육적 논의는 결국 매체 언어 교육의 목적이 그것이 생산된 맥락 자체를 아는 데 있는가, 아니면 맥락 속에서 생산된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는가의 문제로 환언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지는 국어교육에서 매체에 대해 접근하는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은 언어 교육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언어라는 점에서 본다면 맥락은 언어 사용의 전제를 형성하는 조건이기에, 이는 언어 이해의 궁극적 목적으

로서가 아니라, 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를 신문의 교육에 적용해 보면, 신문의 국어교육적 목표는 신문이라는 매체 생산의 사회적, 문화적 틀을 인식하고 신문 고유의 약호화 방식을 익힘으로써 신문의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신문은 객관을 가장한 주관의 표출, 즉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문의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비판적 이해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신문은 그 고유의 약호화 방식을 지니고 있다. 신문의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 사용의 방식을 알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교육에서의 신문 언어 교육의 목표는 수용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매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이해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는 비판적 이해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문의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은 생산과 이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을 수준(level)에 따라 나누어 보면, 한 개인이 혼자 말하고 생각하는 대내적 의사소통(intrapersonal communication),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인적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 소규모 집단 또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집단 또는 조직 의사소통(group/organizational communication), 공중을 대상으로 하며 대중 매체의 중재에 의한 대중 의사소통(mass communic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신문은 대중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대중 의사소통은 다른 수준의 의사소통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차원에서 대중 매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며, 수신자의 규모가 크며, 발신자는 전문 제작자 집단 또는 조직화된 언론 기업이 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신문을 통한 의사소통 체계에 대해 논의할 때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전달과 그 수용이라는 측면이

중심이 되어 왔다. 즉 신문의 경우 일반인들은 생산의 주체가 아닌 수용의 대상으로 보면서 비판적 수용 능력을 기르는 데 교육적 목적을 두어 왔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인터넷 신문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기술적으로 상호작용성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면서 신문은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각 인터넷 신문에 따라 독자가 생산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기사에 대한 평을 쓰거나, 의견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독자들간의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방식으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신문 이용자들은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신문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인들이 기사의 생산자로서 기능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아직은 모든 인터넷 신문에 보편화된 일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의 경우 직업 기자와 생활인 기자의 결합을 내세우면서 일반인이 기사의 생산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신문사에서 인터넷 신문에 토론의 장을 개설해 놓고 그 결과를 종이 신문에 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이 기사의 참여자로 작용하는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 신문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인들이 신문의 수용자로서만이 아닌 생산자로서 참여할 가능성은 보다 확대될 것이다. 신문 생산에 대한 진입 장벽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망은 보다 큰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신문에 대한 국어교육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수용의 면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수용과 생산 능력을 함께 지닌 언어 사용자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보다 증대될 것이다.

IV. 국어교육에서 신문 교육의 내용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문은 다양한 텍스트를 담고 있는 매체이다. 그렇기에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 아닌 신문 언어에 대한 교육을 생각한다면, 신문의 내용 중에서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무엇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매체 교육의 전체 틀 속에서 구조화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다. 또 종이 신문만이 아닌 인터넷 신문까지를 고려하면 신문의 교육에서 어디까지를 다루어야 하며, 인터넷 매체에 대한 교육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두 가지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신문, 즉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신문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생각해 보겠다. 또 신문에서 싣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 중에서는 신문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지만, 본 장에서는 이 중 대표적인 범주로 시각 매체적 특성, 언어 구조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을 설정한 후, 이들에게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시각 매체적 특성

흔히 언어적 측면에서 신문을 생각할 때 문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신문을 살펴보면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적 기호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터넷 신문만이 아니라, 종이 신문의 경우도 시각적인 융합 텍스트의 특성을 보인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터넷 자체는 공감각적인 다중 매체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인터넷 신문의 경우는 시각을 중심으로 한 융합 매체의 특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신문의 의미 작용은 문자 언어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문자 언어와 시각적 기호의 결합을 통

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 언어의 의미만이 아니라 시각적 기호가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두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기사의 전체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신문 언어 이해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신문에서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에는 이것은 사실의 재현이 아닌, 시각적 기호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기호는 그 해석이 한 가지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시각 기호는 함축적이면서 모호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즉 시각 기호가 사용되었을 경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문에서 사용된 시각적 기호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상징적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생산자의 의도에 맞게 선택, 배열,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관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신문에서 시각적 기호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각적 기호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는 이것이 영상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다는 점과 함께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사람들은 시각적 기호는 진실을 말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강한 전달 도구이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설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시각적 기호에 대해서는 논리적 반응 과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각적 기호는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범세계적인 전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사실 베트남 전쟁을 직접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에 대한 수많은 기사보다 폐허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한 소녀의 사진이 보다 많은 것을 전해 주었다.

또한 신문은 공간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뉴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에서는 그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지만, 신문의 경우 수많은 기사와 그 외의 텍스트들을 지면이라는 공간 속에 배치하게 된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하이퍼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종이 신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도 초기 화면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간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인 배치에는 편집의 원칙이 작용하므로 단순히 기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의 중요성의 판단에 기반해서 배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동일한 기사라도 그것이 어떤 면의 어떤 위치에 실려 있으며 어떤 크기로 다루어져 있으며, 제목의 크기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가 그 기사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신문이라는 매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기사의 이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2. 언어구조적 특성

신문은 다양한 종류의 기사문을 싣고 있다. 목적에 따라 기사문은 다양한 유형을 지니며, 각 유형마다 특성 및 구성의 방식이 달라진다. 신문의 기사를 보고 이들이 어떤 유형의 기사인지 아는 것은 기사 이해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정보 전달에 목적을 둔 글과 논리적 설득에 목적을 둔 글은 이해의 방향이 달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사를 작성할 때도 자신이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기사문의 종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석주 외(2002)에서는 신문 기사를 목적에 따라 스트레이트 기사, 피쳐 기사, 해설 기사, 논설 기사, 칼럼, 비평 기사 등으로 나누었다. 스트레이트 기사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사로 육하원칙에 속하는 사실을 비롯해 취재원의 인용문으로 구성된 사실 위주의 기사이며, 피쳐 기사란 보도와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이다. 해설 기사란 어떤 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그 사건의 중요성, 원인, 동기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전망한 기사이며, 논설 기사는 작성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칼럼은 시사·사회·풍속 등을 짧게 평하는 기사로 논설 기사처럼 분석과 비판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락적인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비평 기사는 영화·연극·음악·책·대중 매체 등에 대해서 비평한 기사로, 비평 대상에 대한 보도와 평가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또 최병우 외(2000)에서는 인쇄 매체 언어의 유형을 기사, 사설 및 칼럼, 기획물, 광고, 만화라는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중 기사, 사설 및 칼럼, 기획물은 전통적으로 기사로 분류되던 것들이다. 여기서는 이 중 사건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글을 기사문으로 보면서, 이것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 내용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다보니 육하원칙이라는 독특한 글쓰기의 방식 및 중층적인 글쓰기의 특징을 지닌다고 보았다. 사설 및 칼럼은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로 논설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글이며, 기획물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장시간의 준비를 통해 쓰여진 글로 기사가 가진 육하원칙이나 중층성과 같은 글쓰기 방식이 소거되고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 글이라고 보았다.

기사의 언어구조적 특성을 이해, 구사하기 위해서는 기사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사의 구조적 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문 기사는 구조적인 면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문의 기사를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역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혼합형의 세 가지의 조직유형을 보인다. 역피라미드형은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첫 머리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본문에서 중요도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피라미드형은 사건의 발단에서 시작하여 시간적 또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해 나가면서 끝에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의견 기사나 피쳐 기사에 주로 사용된다. 혼합형은 전문이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본문이 오는 것으로 피라미드형과 역피라미드형을 혼합한 형태이다. 이들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기사문의 이해력을 높이고 기사

문 작성의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뉴스 기사는 대체적으로 제목, 전문, 본문의 세 부분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기사의 언어적 문장 표현 방식은 일상적 언어에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신문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적 구조와 문장 표현 방식을 익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목, 전문, 본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언어적 표현 방식을 지니고 있다.(이주행, 1996:105-124)

· 제목 작성법

- ① 제목은 전문이나 본문을 압축하여 단다.
- ② 제목은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단 지면의 제약이 있는 경우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것은 생략해서 작성한다.
- ③ 제목은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등을 지닌 것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품위 있고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구어로 작성한다.
- 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⑥ 대제목과 소제목의 행수는 각각 1행 내지 2행이 되게 한다.
- ⑦ 제목은 각 신문사에서 정해 놓은 자수에 맞춰 작성한다.
- ⑧ 준말이나 약자는 널리 알려져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전문 작성법

- ① 전문은 6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 ②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작성한다.
- ③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④ 전문은 50음절 이내로 작성한다.
- ⑤ 의미가 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 ⑥ 독자가 이해하기 쉬우며 품위있는 일상적인 구어로 작성한다.
- ⑦ 준말이나 약자는 널리 통용되는 것만을 선택하여 써야 한다.

· 본문 작성법

- ①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문의 맨 앞에 놓이게 하고,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장을 단락의 맨 앞에 놓이게 하여야 한다.

- ②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도록 작성한다.
- ③ 단락을 바르게 설정한다.
- ④ 가급적 길이가 50음절 이내이고 구조가 단순한 문장들로 본문을 구성한다.
- ⑤ 정확성 · 명료성 · 객관성이 있는 문장으로 본문을 구성한다.
- ⑥ 품위가 있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구어로 작성한다.
- ⑦ 뉴스를 확인한 후에 문장화한다.

3. 사회 · 문화적 특성

우리는 흔히 신문 기사는 객관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일부 연예 신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부여하곤 한다. 그렇지만 신문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은 다음과 같은 배경들 속에서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강형철, 1999:115-116).

- ① 정치문화적 원인 : 1920-30년대 파시스트 독재와 베트남전 및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관리의 말을 해석 없이 보도해 주던 데 대한 반감 형성.
- ② 언론학에서 비판적 연구의 등장 : 정치경제적 원인에 의한 정보의 독점과 왜곡, 뉴스 조직과 취재 방식 등 보도 제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실 구성의 문제, 사건과 상징체계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 구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원주의식의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등장.
- ③ 실용적 이유 : 언론은 사실의 나열만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뉴스를 해석해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④ 인식론에서 객관주의 비판 : 인식론에서의 객관성 개념은 주관주의, 문맥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여러 진영의 공격을 받고 있음.
- ⑤ 경제적 환경 변화 : 기업화된 언론은 보도의 오락화 또는 연성화 현상을 보이며 객관성의 준칙을 무디게 하고 있음.

신문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언어 사용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신문이 지니고 있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신문의 언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의도에 맞는 기사 작성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신문에는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가 포용될 수 있는 영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 <표1>과 같다(강형철, 1999:124).

<표 1> 신문의 객관적/비객관적 보도영역

객관의 영역		비객관의 영역	
I 뉴스 : 사실성· 불편부당성		공개적	비공개적
	의 도 적	II 사설 : 당파성	IV 뉴스 : 선전
	비 의 도 적	III 해설 : 주관성	V 해설 : 이데올로기

영역I은 객관성의 영역으로서,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으로 이루어진다. 영역II는 당파성의 영역으로, 이는 언론이 의도적 편향성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어떤 사안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설이 이에 해당한다. 영역III은 취재관행 등 언론 수행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비객관성으로,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취재하는 관행으로 인해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영역IV는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지만 표현 측면에서는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드러나는 비객관성을 말한다. 어떤 신문이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만 이를 선언하지 않고 기사를 구성해 나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역V는 언론인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채 구성되는 비객관성의 영역으로 이데올로기가 이에 해당한다.

신문 기사는 그 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부분과 비객관적인 부분을 지닌다. 해설 기사나 사설의 경우는 드러내 놓은 비객관성의 영역이다.

반면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뉴스의 경우에도 비공개적이지만 비객관성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언론사의 의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기사 작성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이데올로기의 영역일 수도 있다. 언론사의 의도는 정치적, 경제적인 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문 언어의 이해는 이러한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신문은 중요한 위치를 지녀 왔으며, 인터넷 신문의 등장과 함께 과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흔히 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이제는 신문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 읽기가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목적 중 2위를 차지한다는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는 일상 생활 틈틈이 인터넷 신문을 보며 새로운 소식을 접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그 동안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어교육의 모습을 실제 생활 속으로 확장시키면서 국어교육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문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를 교육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이를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노명완(199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하나의 교과가 학교 교육의 전체 틀 속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과적 독자성’과 ‘교육적 보편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문이 지니고 있는 현 사회에서의 문화적 위상과 이를 통한 소통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

는 것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신문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보편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국어교육의 교과적 독자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대중 매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온 미디어 교육이 하나의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디어 교육과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국어교육만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국어교육의 교과적 독자성을 잃지 않으면서 신문을 국어교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 언어를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볼 때 그 교육의 대상, 목적,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본 연구는 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보다 정밀화되기 위해서는 매체 언어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본 연구의 상당 부분은 신문만이 아닌 매체 언어 교육의 일반론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본 논의는 신문에 대한 국어교육적 논의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 아니 대중 매체와 국어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때면 마치 거대한 퍼즐 앞에 서 있는 듯하다. 한 칸을 맞추면 또 다른 한 칸이 어긋나 버리는 그런 퍼즐 말이다. 앞으로 다양한 후속 논의들을 통해 비어져 있는 빈칸들이 제 모양을 찾으면서 메워져 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형철(1999), “신문보도의 주관성과 객관성”, 『언론과 사회』 26.
- 김경실(2001), “신문을 활용한 국어과 사고력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대행(1998),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 김동환 외(2000),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0 학술발표회 자료집』.

- 김미경(1999), “신문활용학습을 통한 국어과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진주교대 석사학위 논문.
- 김양은(2000),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노명완(1995), “언어 현상과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전략”,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탐색』, 일지사.
- 박금자(2001), 『인터넷미디어 읽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길자(1998), “NIE학습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연구소소식』 33.
- 박인기(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회 21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박재승(1999), “신문활용교육의 문제점 고찰”, 『인문학지』 17,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동광출판사.
- 서정섭(1999), 『언론과 언어』, 북스힐.
- 옥현진(2002), “국어과 매체 문식성 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계영(2000), “신문매체를 활용한 독서 수업이 비판적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석주 외(2002), 『대중 매체와 언어』, 역락.
- 이종철(1998), “대중 매체의 언어 메시지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8.
- 이주행(1996), “기사문장의 구성과 표현(신문)”, 『신문 방송 기사문장』, 한국언론연구원.
- 이창덕(2002), “라디오 프로그램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회 22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임천택(2001), “국어교육을 위한 매체와 매체 언어 탐구”, 『새국어교육』 61.
- 장경수(2001), “신문활용을 통한 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구향(2002),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범주와 수용 양상 연구”, 『새국어교육』 63.

- 최미숙(1999), “정보화 시대의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매체(media)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0.
- 최병우 외(2000), “매체 언어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0 학술발표회 자료집』 .
- 최인자(2002), “다중 문식성과 언어문화교육”, 『국어교육』 109.
- 한국교육개발원(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
- 한글학회(1995),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McLuhan, M, 박정규 역(1997), 『미디어의 이해』 , 커뮤니케이션북스.
- Ong, W. J., 이기우·임명진 역(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 문예출판사.

<초록>

신문과 국어교육

이 은 희

최근 국어교육계에서는 대중 매체의 국어교육적 의미 및 수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 매체의 하나인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활용교육(NIE)에 관심이 주어지면서 본격적인 국어교육적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신문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어교육의 대상으로서 신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후, 국어교육에 있어서 신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신문에 대해서는 종이 매체와 정보 전달적 기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신문은 전달 매체와 그것이 담고 있는 텍스트의 두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의 대상으로 신문을 볼 때는 신문이 지닌 다양성과 전체적 대중 매체 교육의 틀 속에서의 신문의 위상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신문을 다룰 때 그 교육 목적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어교육에서 신문이라는 대중 매체 교육을 볼 때는 언어교육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이 속에서 수용과 생산을 통합한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신문 교육의 내용은 여러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문이 가진 시각 매체적 특성, 언어 구조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핵심어】 신문, 국어교육, 미디어 교육, 신문활용교육, 인터넷 신문

<Abstract>

Newspaper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Lee, Eun-hee

Nowadays heated discussions have been made about the meaning and reception of mass media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concerning newspaper,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ss media, there are scanty debates while newspaper in education is an observable issu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way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ewspaper should be approached. To do so, this study, first, examines how proper newspaper is an objec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cond explores what the purpose of newspaper education is, and lastly investigates how the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composed of.

Generally it is likely that newspaper is considered in the light of paper media and article of providing information. However newspaper varies from delivery media to text it contains. Therefore in the consideration of newspaper as an objec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understanding of newspaper should be made simultaneously in both the varieties newspaper has and the framework in which the whole education of mass media has been carried out. On approaching to newspape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much debate tends to be made concerning the aim of paper education, apart from the frame of language education. But the

approach should aim at improving the language use abilities of involving both the reception and production which are bound up with language education. The contents of newspaper can be studied in many aspects. But this essay investigates respectively newspaper's characteries of media, language structure, socio-cultural phenomena.

【Key words】 newspaper, Korean language education, media education, newspaper in education, internet newspaper